

부산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와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이하 “협회”라 한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라, 한화건설, 현대건설, DL건설, GS건설, HJ중공업, KCC건설(가나다순, 이하 “대형건설사”라 한다)은 부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부산시, 협회, 대형건설사가 상호 협력하여 부산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원칙) 부산시, 협회, 대형건설사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이 협약 당사자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역건설산업자의 참여 확대)의 규정을 존중하며, 경쟁력 있는 부산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이 협약 당사자는 부산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대형건설사와 부산건설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 부산시는 부산 건설업체에 대하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형건설사에 대하여 부산지역 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 대형건설사는 부산지역 내 건설사업장에서 부산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협력한다.
4. 협약 당사자는 부산건설업체와 대형건설사의 해외진출사업 확대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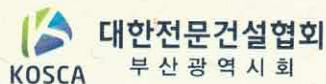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3월 15일



시장 박형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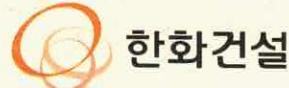
회장 김세원



대표이사 하석주



대표이사 김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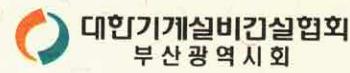
대표이사 최광호



대표이사 임병용



회장 박선호



회장 김종배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성안



대표이사 이재규



대표이사 윤영준



대표이사 흥문기



회장 박만일



대표이사 백정완



대표이사 김석준



주|한리

대표이사 이석민



대표이사 조남창



대표이사 윤희영